21세기에도 일본을 따라잡기 힘든 이유

김재윤 | 탐라대 출판미디어학과 교수

한달 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간 적이 있었다. 제주도에서 오다보니 약속시간보다 꽤 이른 시간에 도착하게 돼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다 전자우편도 확인할 겸 대학 근처에 있는 PC방에 들어가게 됐다. PC방 주인이 안내한 자리에 앉아보니 내 왼쪽에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오른쪽에는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옆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남자는 트럼프 게임에, 여자는 고스톱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2시간쯤 지나고 나는 약속시간이 돼 일어섰는데, 그들의 PC화면엔 변함 없이 트럼프와 고스톱 게임이 떠 있고, 그들의 표정도, 눈빛도,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도 변함이 없었다. 그들의 인내력이 놀라웠다.

친구를 만나고 난 후 그들이 궁금했다. 다시 그 PC방으로 들어간 순간 아찔했다. 내가 앉았던 자리에 초등학교 5, 6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 앉아 있는 걸 제외하고는 그들도, 트럼프와 고스톱 게임 화면도, 자욱한 담배연기도 변함 없었다.

얼마 전 친구집에 놀러갔을 때 일이다. 거실에 놓인 큼직한 TV가 보는 사람도 없이 켜져 있어 TV를 껐다. 친구 왈 "왜 TV를 끄냐?" "아무도 안 보잖아. 전기 아끼려고." "끄지마라. TV가 꺼져 있으면 왠지 허전해." 그 즈음 초등학생인 그 친구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어서 방에 들어가 책 봐라" "싫어요. 디지몬 볼 꺼예요."

초등학생 몇 명에게 물었다. "책 많이 읽니?"

"숙제로 읽어요." "독후감도 파는데 왜 읽어요?" "읽을 만한 책이 없어요." "과외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좋은 대학 가려면 책 많이 읽어야 한대요." "책, 너무 재미 없어요." "야, 넌 책도 안 읽잖아." "읽으나마나 뻔하지 뭐." 쏟아지는 아이들의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한 학기 독서량은 23.3권으로 3년 전에 비해 4.9권이나 줄었다. 일본 초등학생의 한 학기 독서량은 45.6권으로 지난 4년 전에 비해 무려 12.5권이나 증가했다.

우리 정부가 '산업화는 뒤졌으나 정보화는 앞서자'는 구호 아래 좋은 콘텐츠 없이 정보기기와 기술자만 양산할 때, 문화는 뒷전이고 무너지는 재벌 살려야 한다고 아우성 칠 때, 정부가 앞장서 한 일은 그 동안 유명무실하던 '도서관 및 독서 진흥기금'을 아예 없애고, '도서관 및 독서 진흥위원회' 마저 없앤 것이다. 이 시기에 일본은 '어린이가 책을 읽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기치 아래 국회의원 188명이 중심이 돼 국립국제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국회가 앞장서 만장일치로 2000년을 '어린이 독서의 해'로 정해 전 국민적인 어린이 책읽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 '어린이 독서 추진법안'도 제정될 예정이다. 그 외에 '10분간 아침 독서운동' '어머니와 어린이의 20분 독서운동' '아이와 함께 책 읽는 부모 되기' '북 스타트(Book Start) 운동'도 펼치고 있다.

교과서 왜곡에만 흥분하는 우리가 과연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리처드 라일리 전 미국 교육부 장관의 '하루 30분 책읽기 교육 혁명론'과 스필버그 감독의 "오늘의 나는 책과 어린 시절 마음껏 책을 읽게 해준 도서관이 만들었다"는 말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출판저널 격주간 · 값 2000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통권 제310호 | 2001년 10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이사 — 임홍조
편집자문 —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 박천홍
기자 — 강성민 김장근 차정신 박옥순
사진 — 김경록
편집디자인 —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박기아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 · 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 722-1174
E-mail —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 chulpan
천리안 —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댁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